

근대 제주불교와 봉려관 연구

- 일제강점기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

이성수*

• 목 차 •

I. 서론

II. 1910년대 제주불교 재건

III. 1920년대 제주불교협회 설립과 활동

IV. 1930년대 제주불교계의 교육사업

V. 결론

한글요약

제주불교는 조선 후기 이형상(李衡祥) 목사의 탄압으로 극심한 고초를 겪었다. 이런 상황에서 비구니 봉려관(蓬廬觀)은 법정사와 관음사 등을 창건하면서 제주불교를 복원했다. 봉려관은 활발한 전법 활동을 전개하고 주민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제주불교 재흥(再興)과 사회화에 기여했다. 20세기 초 제주인들의 불교 인식이 높지 않은 상황을 극복하며 근대 제주불교의 교세를 확장했다. 남성 중심 사고가 팽배해 있었던 20세기 초 현실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일이었다.

불교 포교와 더불어 사회구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제주기근구제회 집행위원으로 참여하고, 동수천을 수축하는 등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사업을 전개했다. 불교 가르침을 교단 내에만 머물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자비행을 실천했다.

근대 제주불교인들이 참여한 제주불교협회는 은연중에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여성운동 등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을 펼쳤다. 봉려관, 제주지역 승려, 신도들은 유치원에 이어 중등학교 교육기관을 설립해 지역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봉려관이 창건한 법정사의 무오항쟁은 1919년 3·1운동보다 앞서 켜기한 독립운동으로 역사적 의미가 크다.

이처럼 일제강점기 봉려관은 제주불교인들과 제주불교를 중흥하고 대사회적 역할을 이행하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사실은 일제강점기 『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신보』 등 언론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숱한 고초를 겪으면서 출가수행자로 제주불교의 초석을 놓고 제주사회의 근대화에 기여한 봉려관의 생애와 가르침이 바르게 기록되고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주제어

봉려관, 비구니, 제주불교, 관음사, 법정사, 제주기근구제회, 제주불교협회, 제주중학강습원, 제주유치원, 독립운동

* 불교신문 기자. 동국대 국문과 겸임교수.

© 『大覺思想』 제38집 (2022년 12월), pp.79-109.

I. 서론

제주도는 민족과 역사를 함께한 유서 깊은 도서(島嶼)로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한민족과 역사를 같이한 제주는 끈질긴 생명력을 갖고 독특한 문화를 유지해왔다. 제주불교는 조선 후기 제주목사 이형상(李衡祥, 1653~1733)의 폐불(廢佛)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런 상황에서 비구니 안봉려관(安蓬廬觀, 1865~1938, 이하 봉려관)이 법정사와 관음사 등을 창건하며 제주불교를 복원했다. 활발한 전법 활동을 전개하고 주민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제주불교 재흥(再興)과 사회화에 기여했다.

이번 연구는 일제강점기 언론보도로 확인할 수 있는 제주불교의 주요 활동을 시대별로 살펴보면서 봉려관의 역할을 조명하였다. 봉려관의 출가 과정 및 불교활동, 대사회 운동은 물론 권덕규(權惠奎, 1890~1950), 이병기(李秉岐, 1891~1968), 이은상(李殷相, 1903~1982) 등 문인(文人)들이 언론에 기고한 글도 주목하였다.

이제까지 나온 연구자료를 종합하면 봉려관은 1865년 8월 5일(음력 6월 14일) 제주 화북리에서 태어나 1938년 6월 26일(음력 5월 29일) 세상을 떠났다. 조선 후기에 태어나 일제강점기 후반까지 생애를 보냈다. 세계열강이 각축을 이루던 때에 세속에서 생활하고 대한제국이 막을 내린 후 일제가 지배하는 격동기에 수행자의 삶을 살았다.

이러한 외부적 환경 속에서 근대기를 맞이한 봉려관은 불교를 기반으로 제주와 조선의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한다. 일제는 친일 불교를 앞세워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제주의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했고, 제주불교인들은 제주불교협회를 중심으로 극복 방안을 모색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이번 연구의 자료는 일제강점기 언론은 『매일신보(每日申報)』, 『동아일보(東亞日報)』, 『조선일보(朝鮮日報)』, 『조선중앙일보(朝鮮中央日報)』

등이다. 우선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별로 제주불교와 봉려관이 등장하는 언론 보도를 취합하여 정리하여 봉려관의 역할, 위상, 언론의 시각을 살펴보았다.

II. 1910년대 제주불교 재건

앞서 서술한 대로 1910년대 일제는 한반도 침략을 노골화했다. 1910년 한일 병합 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가 초대 조선 총독에 부임하면서 식민지배를 본격화했다. 제주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다. 1919년 3·1운동에 앞서 제주에서는 1918년 10월 법정사 무장항쟁이 일어났다. 봉려관이 처음 언론에 등장한 것은 1918년 3월 2일 자와 3월 3일 자 『매일신보』이다. 「濟州島 峨嵋山 蓬廬庵¹⁾의 奇蹟 - 솜갓흔 괴괴흔 이약이」라는 제목의 기사이다.²⁾

제주도 아미산관음사(峨嵋山觀音寺)라는 절은 봉려관(蓬廬觀)이라는 녀승이 지극한 사람의 힘으로 창조한 절인바 그 뒤에 안도월(安道月)을 주지로 삼어 전도에 종사하던 중 신도의 수효가 수백 명에 이루어짐으로 근자에 그 절의 규모를 확장하기 위하여 법당을 식로히 짓기로 하였고 또 이왕에는 법정산법동사(法井山法凭寺)라는 절도 건설하였더라.³⁾

봉려관 녀승의 괴괴흔 리약이는 이로부터 가뎡에 드러간다. 방향 업시 한라산 김흔골을 향하고 드러가던 봉려관은 난덕업는 쏜벌에게 지도를 벗어 얼마쯤 가다가 백록담(白鹿潭)이라는 냇날 절터에 당도되었는디 지금스지 몸을 들너싸고 압길을 인도하던 쏜벌은 일시에 헛터져 날너가 버리더라.

1) 蓬廬觀의 오자. 이 기사에는 봉려관, 봉려암으로 표기되어 있다.

2) 인용문은 원문을 최대한 그대로 옮기면서 띄어쓰기와 마침표만 임의대로 하였다.

3) 「濟州島 峨嵋山 蓬廬觀의 奇蹟」, 『매일신보』 1918년 3월 2일.

… (중략) … 그뒤로 봉려관은 열성으로 공부를 하며 전도에 힘을 써서 신도도 만히 늘었으며 명법산「定法山」에 법도암「法兜庵」이라는 것을 이르고 다시 아미산에 관음사를 창건하였다.⁴⁾

원고를 작성한 이의 기명(記名)이 없어 『매일신보』 기자가 정리한 기사로 보인다. 이 기사들을 종합하면 아미산 관음사를 봉려관이 ‘한 사람의 힘’으로 창건하였으며, 안도월을 주지로 삼았고, 불교를 널리 전해 신도가 수백 명에 이르렀다. 봉려관이 육지에서 경문과 염불을 공부하고, 제주로 돌아온 후에 주민들의 박해가 극심했다. 한라산 백록담에서 칠일주야로 곡기를 끊고 수행하고, 가사를 받는 꿈을 꾸고, 열심히 전도하여 신도가 많이 늘고, 법도사(법도암)와 관음사를 창건했다는 내용이다.

봉려관은 교학과 염불을 수행하고 제주로 돌아왔지만, 주민들의 박해로 다시 한라산에서 기도한 후 가사를 전해 받는 현몽을 하였다. 20세기 초 제주인들의 불교 인식이 높지 않은 상황을 극복하여 법정산 법도사(정법산 법도암)⁵⁾와 아미산 관음사를 창건하여 근대제주불교의 초석을 놓고 교세를 확장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1927년 2월 1일 발행된 『불교』 제32호에도 언급되어 있다.

約二十五年前本島禾北里乙丑生安氏는願地有種에忽生其芽하야佛日을挽回코저하나踰躄乏弱에百障이遮前하고千碍가壓頭하야多年間의苦楚를不勝타가그理想을實現하려고全羅南道海南郡大興寺有藏老尼를차저가서削髮爲僧하야號를海月이라하고即地入島하얏는데信士己卯生安氏號道月은本是嶺南山清人으로偶然히入島하니距今十八年前庚戌早春이라因緣이際會하야志同力合하니鐘子期の伯牙며營仲의鮑叔이로다觀音佛像을漢拏山中腰에奉安하니名曰觀音寺라한다.⁶⁾

4) 「濟州島 峨嵋山 蓬廬觀의 奇蹟」, 『매일신보』 1918년 3월 3일.

5) 법정사의 또 다른 이름으로 1918년 10월 일제에 항거해 무장독립항쟁이 일어난 사찰이다.

이 글에서 강태현⁷⁾은 봉려관의 고향과 생일을 제주 화북리로 1865년이라 서술하고 있다. 안도월은 재가 신도인 신사(信士)로 표기하여, 이후에 출가했음을 추정케 한다. 관음불상을 봉안하고 관음사라 칭한 것을 1910년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다른 자료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강태현의 글은 관음사 창건 과정에 봉려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을 분명히 하고, 수백 명의 신도를 확보할 만큼 불교 흥포도 널리 이뤄졌음을 서술하고 있다. 봉려관은 1900년대 중반 이후부터 포교 활동을 시작하여, 1910년대 후반에는 제주불교 증흥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했다.

『매일신보』는 두 차례 보도에서 봉려관의 이력도 소개하고 있다. 20세기 초반 여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았던 시대 상황을 감안할 때 중앙에서 지리적, 문화적으로 소외된 제주의 ‘비구니’ 이력을 상세하게 보도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봉려관이 제주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으며, 중앙에서 발행하는 언론에서도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매일신보』는 봉려관이 ‘환김에 삭발하여 승려가 된 여승이 아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세상사에 절망하여 즉흥적으로 출가한 것이 아니라, 소신과 결단으로 불문(佛門)에 든 ‘적극적인 비구니’임을 밝히고 있다. 시대를 앞서간 여성 수행자인 동시에 전통적인 여성상을 극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매일신보』는 봉려관의 출가 이후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세속의 인연을 끊고 제주에서 여러 곳을 다니며 수행하다 배를 타고 육지로 건너가 교학을 배우고 염불 수행을 했다. 유력(遊歷)한 사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기사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제주로 돌아와 ‘염불삼매’에 들었다는 기사 내용은 봉려관의 수행법을 가늠하게 한다. 각종 경전

6) 圓慧居士(姜泰鉉), 「濟州佛敎의 由來」, 『佛敎』 제32호, pp.37-40, 佛敎社, 1927년 2월.

7) 이 글을 쓴 ‘圓慧居士 姜泰鉉’은 일제강점기 탐라협회(耽羅協會) 간사(1922), 제주공립보통학교 교원(1928)을 지낸 인물이다.

을 탐독하고, 염불을 중시하였으며 고향으로 돌아와 염불삼매(念佛三昧)에 들어 정진했다. 이는 이후 봉려관이 ‘관세음보살’ 염송을 수행의 근간에 놓았다는 사실과도 부합한다. 고향으로 돌아온 봉려관의 앞길이 평탄하지는 않았다. 여전히 제주사회에서 불교와 여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박대하고 탄압하여 불상을 훼손하고 쫓아냈다. 그럼에도 봉려관은 수행을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신심이 더욱 굳어져 한라산에 들어가 정진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그 후 산천단(山川壇)에 내려오니 계룡산 노승(老僧)이 합장하며 현몽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사를 전해주었다. 봉려관의 신심은 견고해져 불교를 전도하고, 정법산⁸⁾ 법도암과 아미산⁹⁾ 관음사를 창건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매일신보』는 봉려관의 생애와 수행 일화를 자세하게 전하고 있다. 1920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창간되기 이전까지 한글로 발행된 『매일신보』가 봉려관 기사를 비중 있게 다뤘다는 사실은 의미가 있다. 사실(fact)과 신비(mystery)한 내용을 조합하여 전달한 기사는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시켰다.

III. 1920년대 제주불교협회 설립과 활동

일제강점기 봉려관 관련 기사는 1920년대에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1920년대 언론에는 제주불교 내용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봉려관을 언급한 기사가 수차례이다. 1924년 6월 4일 자 『매일신보』는 「濟州 觀音寺 落成式」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관음사 창사(創寺)의 주역이 봉려관임을 밝히고 있다.

8) 법정산

9) 관음사 인근의 한라산 봉우리

濟州島 漢拏山下에 創設된 觀音寺의 實況은 往年 本報에 紹介함과 如히 蓬廬觀 氏의 烈誠과 安道月 氏의 韓旋으로 多年 建築 中이던 法堂은 今에 落成을 告하고 陰四月初八日 釋迦牟尼佛의 降生을 紀念으로 盛大히 落成式을 開催한 바 甘船月 氏의 開會式辭가 有한 後 李晦明 氏의 佛敎講演과 朴暎熙 氏의 歷史 說明과 本寺 代表 車升玉 氏로부터 創寺의 內容 及 來歷을 詳細 說明하고 前田島司의 代理로 加藤英造 氏가 出席하여 將來 擴張에 對한 祝辭가 有하여 觀覽者 男女 合 萬餘 名에 達하여 頗히 人山人海를 成하여 本島 開荒 後 未曾有의 大盛況을 致(濟州)¹⁰⁾

『매일신보』는 이 기사에서 ‘앞서 보도한 바와 같이’ 한라산에 창설(創設)된 관음사가 봉려관의 ‘열성(列誠)’ 과 안도월의 ‘알선(韓旋)’으로 수년간 건축한 법당을 낙성하고 사월초파일 봉축 행사를 성대하게 했다고 전하고 있다. 봉축 행사에는 1만여 명이 몰리고, 제주의 일본인 관료 카토에이조오[加藤英造]가 축사를 했을 정도로 관음사는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이 기사에서 주목되는 점은 감선월(甘船月)의 개회 식사, 박영희(朴暎熙)의 역사(歷史) 설명과 본사(本寺) 대표 차승옥(車升玉)의 창사(創寺) 내용 및 내력(來歷) 설명이다. 박영희(1893~1990)¹¹⁾, 차승옥, 감선월¹²⁾은 해남 대흥사 승려이다. ‘불교강연’을 한 이회명(李晦明, 1866~1951)은 유력 승려이다. 봉려관은 20세기 초에 이회명, 차승옥, 박영희, 감선월 등 불교계의 중앙, 본사 승려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육지와 유리된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대흥사는 물론 중앙 교단과도 교류하고 있었다.

서론에서 언급한 대로 권덕규, 이병기, 이은상 등의 눈에 비친 봉려

10) 「濟州 觀音寺 落成式」, 『매일신보』 1924년 6월 4일.

11) 법명 응송(應松), 해남 대흥사에서 출가해 1937년 주지를 역임했다.

12) 1911년 해남 대흥사 유나(維那) 및 섭리(攝理), 1919년 대흥사 감무(監務), 1928년 산계주임(山係主任), 1931년, 1938년 대흥사 주지를 지냈다. 1921년 10월 대흥사에서 발간한 『제위토대장(祭位土臺帳)』에 등장하며, 1935~36년 경성 금강산사(金剛山社)와 금강산 표훈사가 발행한 불교잡지 『금강산(金剛山)』에도 법명이 나타난다.

관도 당시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24년 8월 23일 『동아일보』 1면 권덕규(權惠奎, 1890~1950)¹³⁾의 「濟州行(十二)」, 1924년 8월 25일자 『동아일보』 4면 이병기(李秉岐, 1891~1968)¹⁴⁾의 「濟州 八 路에」, 1937년 9월 8일 『조선일보』 5면 이은상(李殷相, 1903~1982)¹⁵⁾의 「漢拏山巡禮記」이다. 권덕규와 이병기의 글은 같은 시기에 보도된 것이고, 이은상의 글은 13년 뒤의 글로 봉령관이 입적하기 1년 전에 발표된 것이다. 이 가운데 1924년 언론에 소개된 권덕규와 이병기의 글을 살펴본다.

邑에서 二十五里 許 漢拏山 기슭에 觀音寺라는 절이 있다. 이 절은 지금의 蓬廬觀이라는 前의 宣氏 집 夫人이 한때에 飛揚島를 건너 가다가 사나운 風波가 배를 거의 업히려할 즈음에 무슨 信念이 생겼는지 觀世音菩薩을 誠心으로 불렀다. … (중략) … 信心이 鐵堅하야 去 隆熙 三年 己酉에 이 觀音寺를 創建하야 가지고 大興寺 安道月 和尚의 協贊을 어더 이제는 제법 큰 伽藍을 일우었다. 아~ 數百年 동안 伽藍이 廢絶되었던 이 地方에 미친 듯한 이 蓬廬觀의 信心이 아니더면 엇지 쉬울 것이라.¹⁶⁾

권덕규는 관음사를 창건한 봉령관의 이력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비양도를 건너다 거센 풍파로 위험에 처했을 때 관세음보살을 염송하여 어려움을 극복했으며, 이 일을 계기로 출가했다. 권덕규의 이 글은 1918년 3월 3일 자 『매일신보』 「濟州島 峨嵋山 蓬廬觀의 奇蹟」¹⁷⁾

13) 국어학자, 역사가, 호는 애류(崖溜). 조선어학회 33인 중 1인이다. 2019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됐다.

14) 시조 작가 겸 국문학자로 호는 가람(嘉藍). 한성사범학교를 나와 휘문고 등보통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많은 시조를 발표하였다. 1926년 동아일보에 <시조란 무엇인가>를 발표한 후 현대적 감각을 지닌 시조를 짓기 시작했다. 해방 후에 전북대 문리대 학장, 서울대 강사, 중앙대 교수 등을 지냈다.

15) 시조 시인, 사학자, 연희전문과 일본 와세다대를 졸업하고, 경희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화여전, 서울대, 영남대 교수, 대한민족문화협회장, 한국시조작가협회장, 한국산악회 회장 등을 지냈다.

16) 權惠奎, 「濟州行(十二)」, 『동아일보』 1924년 8월 23일.

이란 기사에 실린 봉령관의 출가 동기와는 차이가 있다. 『매일신보』에서는 자신의 결단으로 부처님에게 의지하기로 발원하고 집을 떠나 출가했다고 하는데, 권덕규의 글에서는 배를 타고 비양도를 건너다 폭풍을 만난 관음기도를 통해 이겨낸 것으로 출가 계기로 밝히고 있다.

권덕규는 이 글에서 관음사의 창건주와 창건 시기를 명확하게 서술하고 있다. 봉령관이 신심이 철건(鐵堅)하여 융희(隆熙) 3년 기유(己酉)¹⁸⁾에 관음사를 창건했다는 것이다. 권덕규는 “수백 년 동안 폐절(廢絶)되었던 이 지방에 미친 듯한 봉령관의 신심이 아니더면 엇지 쉬울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즉 신심이 견고한 봉령관에 의해 관음사가 창설(創設)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제주불교가 재흥(再興)되는 계기가 되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권덕규는 봉령관을 “광요(狂妖)라는 호(號)까지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광요’는 “미치고 괴이한 이”라고 풀이할 수 있는데, 여성 수행자의 신분으로 불교를 전하는 일이 무모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남성 중심의 사고가 여전히 팽배해 있었던 20세기 초 근대 제주와 한국 사회의 현실을 고려하면 불교를 전하는 일은 ‘미치지’ 않고는 이뤄낼 수 없는 일이었다.

권덕규와 같은 시기에 글을 게재한 이병기는 관음사와 봉령관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병기는 일제강점기 시조부흥운동에 나선 인물로 국문학과 서지학에 업적을 남겼다. 권덕규와는 1921년 조선어연구회를 만들어 우리말연구운동에 앞장서는 등 민족의식을 지닌 인물이다. 이병기는 1924년 8월 25일 자 동아일보에 ‘觀音寺’라는 제목의 시조를 게재했다.

오라리 아라리로 觀音寺 차저드니
蓬廬觀 菩薩님은 念佛만 하옵시고
淸風閣 主人公은 졸음만 졸고 있다

17) 「濟州島 峨嵋山 蓬廬觀의 奇蹟」, 『매일신보』 1918년 3월 2일.

18) 융희 3년과 기유는 1909년이다.

두어라 세상만사를 南無阿彌陀佛 觀世音菩薩¹⁹⁾

이병기가 관음사를 방문한 1924년 봉려관은 염불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 인상 깊은 것은 ‘염불만 하는 봉려관 보살님’이라는 대목이다. 이 시조에서 이병기는 봉려관을 ‘보살님’으로 칭하고 있는데, 보살(菩薩)은 중생의 고통을 구원하는 대승불교(大乘佛敎)의 이상적인 수행자이다. 봉려관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며 정진하고 있었다는 서술은 관음신앙을 위주로 수행했음을 보여준다.

1920년대 봉려관이 등장하는 또 하나의 보도는 1925년 2월 9일 『동아일보』 5면에 실린 ‘제주도에도 기근구제회, 십여단체 발기로 조직’이란 제목의 기사이다. 흉년 때문에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주민이 발생하여 이를 타개하기 위한 취지로 제주기근구제회(濟州饑饉救濟會)를 조직한 내용이다.

當地 各 團體에서는 饑饉救濟 方針에 對하여 百方으로 考慮하여 오던 바 舊 正初를 期하여 去一月三十一日 下午 三時에 各 團體 代表가 濟州青年會 館에 會集하여 濟州饑饉救濟會를 組織하고 … (중략) … ▲ 執行委員 金泰玟, 梁洪基, 金澤洙, 高瑪利亞 女史 蓬廬觀 安史²⁰⁾ 外 十數人²¹⁾

봉려관은 김태민, 양흥기, 김택수, 고마리아 등과 제주기근구제회 집행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기구에는 제주불교협회, 제주청년회, 제주부인회, 제주기독교청년회, 중앙탐흥회, 갑자제흥회, 용진회, 소년돈목회, 소년신명회, 소년광명단, 소년보인회, 『조선일보』 제주지국, 『시대일보』 제주지국, 『동아일보』 제주지국 등 14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같은 사실은 봉려관을 비롯한 제주불교협회 등 제주지역 승려와 신도들이 지역의

19) 가람 李秉岐, 『濟州人』, 『동아일보』 1924년 8월 25일.

20) 女史의 오자.

21) 『濟州에도 饑饉救濟會, 十餘團體發기로 組織』, 『동아일보』 1929년 2월 9일.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주민들을 돕는 이타행(利他行)에 적극 나섰음을 알 수 있다. 봉려관은 집행위원으로 선출될 만큼 제주불교계를 대표하는 인사로 지역사회에서도 신망받는 인물이었다. 당시 제주기근구제회는 회원들이 ‘가마니 전대’들을 둘러메고 마을을 다니며 곡식을 모았으며, 구제회 산하 선전부가 깃발을 들고 악대를 앞세워 읍내를 순회하면서 노방연설(路傍演說)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 1925년 2월 8일 자 조선일보는 ‘제주도에서도 기근구제회 조직, 회원들이 자루를 메이고, 도라 다니며 곡식을 모아’라는 제목으로 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제주기근구제회에 참여한 제주불교협회는 1924년 11월 17일 오후 7시 제주공립보통학교에서 이회명 외 10여 명이 불교진흥(佛敎振興), 심신수양(身心修養), 지방문화발전(地方文化發展)을 목적으로 결성한 단체이다.

在滿同胞가 中國 官憲에게 가진 迫害를 當한다는 消息을 接한 濟州青年 聯合會 主催로 去 二十四日 下午 二時에 城內 二徒里 鄉舍에서 濟州青年會 濟州記者團 濟州基督教會 山池青年會 濟州婦人會 濟州女子青年會 濟州學友會 濟州公普同窓會 濟州吟社 等の 代表 二十人이 모여 在滿同胞擁護同盟 發起會를 開催하고 該同盟 創立大會 準備委員 十一人을 選出하여 … (중략) … 庶務部 金成玉, 金赤內, 調查部 韓相鎬, 姜箕贊 宣傳部 高禎○, 金斗奉, 高守善, 安道月²²⁾

제주불교계는 1920년대 후반 만주지역 동포들을 돕기 위한 활동에도 참여한다. 1928년 1월 재만동포옹호회에 제주청년회, 제주기자단, 제주기독교회, 산지청년회(山池青年會), 제주부인회, 제주여자청년회, 제주학우회, 제주공보동창회(濟州公普同窓會), 제주음사(濟州吟社) 등이 참여하는데, 조사부원 명단에 안도월이 포함되어 있다. 단체 명단에 제주불교 단체들이 나타나지 않지만 안도월이 명단에 게재된 것으로 보아 제주

22) 『濟州各團聯合 擁護同盟組織』, 『동아일보』 1928년 1월 7일.

지역 불교계도 함께 했을 가능성이 있다. 제주불교협회의 창립과 활동 과정은 1927년 『불교』 제32호에 실린 글을 통해 상세히 알 수 있다.

深山 單寺로 獨善 修道는 現代 風潮에 慚愧莫甚이라 하고 城市로 내려가서 佛敎을 宣傳키 爲하야 地方官廳과 相議하고 그 翌日에 濟州公立普通學校 講堂을 엮고 悟是佛이라는 演題下에 三百餘 名 聽衆의 拍手喝采 소리에 山이 뛰고 물이 끓었다. 그날 밤 七時에 當地 人士 數十人으로 하여금 濟州佛敎協會 發起會를 組織하고 濟州를 一週한 結果 當年 十二月 二十五日에 第一期 總會를 觀德亭에서 開催하니 空前絶後의 大盛況이라 從此로 佛敎란 意義를 男女老弱이 竝다 알게 되었다. … (중략) … 濟州城內 二徒里 千三百六十二番地에 位置를 두어 和洋式으로 建築하고 그 內에 佛敎協會·佛敎婦人會·佛敎少女團의 看板을 부치고 會員을 募集하니 人員은 三千餘 名이오 洞里別로 三十餘名의 總代를 두고 會務를 着着 進行하니 是誰力인가 世尊의 願力과 그 恩惠 中에 沐浴하시는蓬廬觀·安道月·李晦明 氏의 多年를 苦心焦思와 磨頂放踵하시든 功勞 卽 成功의 이삭이다 記者는 그 三 氏의 來頭史는 將次 붓을 잡고 기대합니다.²³⁾

제주불교협회가 제주공립보통학교 강당을 대여해 개최한 발기회 및 강연회는 300여 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뤘다. 제주불교협회는 1924년 11월 17일 발기회를 개최하고 회원을 규합해 관덕정에서 제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불교부인회와 불교소녀단 등이 참여했는데 회원이 3000여 명에 이르고, 마을별로 30여 명의 대의원을 둘 정도로 전법과 사회 활동을 조직적으로 추진했다.

어려운 지경에 처한 주민을 돌보는 일에 봉려관과 제주불교계가 기여한 사실을 증명하는 보도가 있다. 1925년 5월 22일 자 『매일신보』에 실린 「各地 篤志家 - 蓬廬觀 和尚 美舉」라는 제목의 기사이다.

濟州島 觀音寺 住持인 蓬廬觀 和尚은 城東 附近 一隅에 從來 飲料水인 童壽泉이 有한대 中間 荒廢됨을 遺憾으로 하야 此를 修築하야 一般 需用者의 便宜를 圖케 하얏슴으로 來往의 賓客이 氏의 美舉를 讚賀不已한다더라. (제주)²⁴⁾

봉려관은 제주성 동쪽 동수천이 황폐해진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수리하여 새로 쌓아 주민들에게 식수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상 기술한 대로 봉려관은 제주기근구제회에 집행위원으로 참여하고, 동수천을 수축하는 등 어려운 이웃을 구하는 일에 나섰다. 불교 가르침을 교단 내에만 머물게 한 것이 아니라 세간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자비행을 실천한 것이다. 사회복지 인식이 낮은 시대 상황을 고려할 때 봉려관의 자비행은 선구자와 다름없다.

1925년 4월 10일 자 『매일신보』와 1925년 4월 26일 자 『동아일보』는 제주불교협회가 신시가지(제주읍내)에 신축 포교당을 건축하여 낙성식을 거행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

濟州島佛敎協會에서는 重要 幹部의 主催로 敎務를 擴張하기 위하야 市街地 內에 大規模로 布敎堂을 新建築하고 信徒를 多數히 募集하는 中인대 次第로 發展할 餘望이 有할 줄로 豫測한다더라(濟州)²⁵⁾

蓬廬觀 女師와 和尚 安道月 及 其弟子인 吳利化 玄徑化 諸氏가 合力하야 城內에 四十間 布敎堂을 建築 中인바 近近 竣工되야 陰 四月八日에 落成式을 舉行하리라고(濟州)²⁶⁾

포교당 준공 기사에는 ‘봉려관 여사(女師)’라고 언급되고 있다. 여사는

24) 「各地 篤志家」, 『동아일보』 1925년 5월 22일.

25) 「濟州佛敎協會, 新築布敎堂 建築, 敎務 擴張으로」, 『매일신보』 1925년 4월 10일.

26) 「布敎堂 竣工」, 『동아일보』 1925년 4월 26일.

23) 圓慧居士(姜泰鉉), 「濟州佛敎의 由來」, 『佛敎』제32호, pp.37-40, 佛敎社, 1927년 2월.

‘여성 스승’, 즉 ‘여성 스님’ ‘비구니’라는 의미이다. 제주불교와 관음사에 대한 보도에 봉려관이 앞부분에 기술된 것은 그만큼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다. 제주기근구제회 집행위원회에 봉려관이 선임된 것은 제주불교의 대표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봉려관은 1920년 중반에도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제주불교를 재건하고 다양한 전법 활동을 전개한 흔적이 보인다. 다음은 1925년 4월 19일자 『매일신보』에 게재된 「濟州佛教의 隆興」이란 제목의 기사에도 등장한다.

朝鮮佛教大會 大法師 李晦明 氏는 當地 佛教 勸設인 蓬廬觀 安道月 兩和尚의 依賴로 客年에 入島하여 第一回公立普通學校에서 佛教趣旨를 講演하였는데 拍手 喝采 中에 官民 有志의 歡迎을 得하여 濟州佛教協會를 組織하고 創立후 不過 四五個月에 男女 會員이 數千에 達하였으므로 當地 富豪家 宋錫教 氏는 臨時布教所를 無償貸與하고 前 判事 梁洪基 氏는 自己 事務室에서 協會事務를 取扱케 하고 教務를 擴張키 爲하여 蓬廬觀 安道月 兩和尚은 多數한 經費를 投하여 中心 市街地에 布教堂을 新築하고 四月二十五日 佛居를 卜하여 落成式 及 佛教協會 定期總會를 開催코자 目下 準備中인데 教堂의 構造는 實로 宏壯하여 內鮮人間 來觀者가 盛稱 蓬廬觀의 徹頭徹尾로 多大事業은 不必○說이오 且 李晦明 法師의 傳道擴張함을 隨하여 從來 無佛國이던 濟州가 有佛國의 新世界를 化成하겠다고 豫測하는 中이라(제주)²⁷⁾

『매일신보』는 이회명이 제주불교를 창설한 봉려관, 안도월 화상의 의뢰로 객년(客年)²⁹⁾ 제주도에 와서 불교 강연을 했다고 소식을 전했다. 기사 말미에 “蓬廬觀의 徹頭徹尾로 多大事業은 不必○說이오 且 李晦明法師의 傳道擴張함을 隨하여 從來 無佛國이던 濟州가 有佛國의 新世界

27) 관독불가

28) 「濟州佛教의 隆興」, 『매일신보』 1925년 4월 19일.

29) 1924년

를 化成하겠다”고 제주불교 부흥에 봉려관의 역할이 지대했음을 강조했다. 이회명의 내도(來島)와 제주불교협회 조직, 봉려관과 안도월의 많은 재정 지원으로 포교당 신축, 봉려관의 철두철미한 사업 집행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1920년대 봉려관이 제주불교 활동의 중심에 있었으며, 안도월과 더불어 경비를 부담하는 등 모든 것을 아낌없이 보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봉려관을 비롯한 제주불교인의 노력으로 ‘무불국(無佛國)’이라 불리던 제주가 ‘유불국(有佛國)’의 ‘신세계(新世界)’에 도달할 것이라고 『매일신보』는 평가하고 있다. 봉려관이 적극적으로 불교 사업을 추진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불교는 지역사회와 연대 관계를 유지하며 포교당을 활동 공간으로 제공했다. 1925년 12월 26일 성내(城內)에 있는 불교당을 제주여자청년회의 창립총회 장소로 제공한 사례가 있다.

제주에서 여자청년회를 창립하였다 함은 기묘한 바와 갖거니와 거 십이월 이십륙일 오후 칠시에 성내 불교포교당에서 제주여자청년회창립총회(濟州女子青年會創立總會)를 개최하였다(제주)³⁰⁾

1925년 12월 창립한 제주여자청년회는 “女性解放을 絶叫하여 創立되었는데 教養에 置重하여 婦人會와 協力으로 濟州婦人夜學을 경영”³¹⁾했다. 봉려관 등 제주불교를 이끌고 있던 승려와 신도들이 여성운동을 우호적 인식하고 도움을 주었다. 봉려관은 제주불교부인회 창립을 지원하여 식민지 치하에서 여성을 계몽하였다. 제주불교부인회(濟州佛教婦人會)와 제주불교소녀단(濟州佛教少女團)을 조직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1920년대 제주불교는 제주불교협회³²⁾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

30) 「濟州女靑創立」 동아일보 1926년 1월 9일.

31) 「婦人會及 女子青年會」, 『동아일보』 1926년 10월 28일.

32) (전략) … 오직 우리 瀛洲 一帶는 이러한 모임이 없었음은 유감이었습니다

개했다. 금강대계회(金剛大戒會), 발전 방안 수립, 성도절 기념행사, 설법대회, 불교강연 등을 개최한 자취를 당시 언론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1927년 제주에 수해가 발생했을 당시 대규모로 추도회를 개최하고, 1930년에는 해상에서 조난된 이들을 위한 수륙회를 주관하는 등 구호 및 지원 활동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濟州佛教協會에서는 法師 李晦明의 斡旋下에 信徒가 日로 增加되야 去陰十一月十五日 第一會 金剛大戒會를 開催하였는데 參戒者는 百人以上에 達하였고 日本布教堂 建築費에 對하여 多大한 同情으로 捐補者가 逕至한바 金額及 芳名은 左와 如하더라(濟州)

金根著 氏 金五十圓
高翊柱 李允熙 氏 各 二十圓
梁洪基 金泰玟 唐芝洙 李奉薰 崔致敬 文在昌 孫禎謨 氏 各 十圓
崔元淳 崔允淳 金永준 前田善次 宋錫敦 李萬榮 及川源五郎 馬場五郎 朴相賢 金敬洙 文在翼 氏 各五圓
… (중략) …
佐仲方一郎 日僞藤吉 石井啓介 金斗辰 愼金石 孫宗權 吳達寧 梁致祐 金瑞俊 文在煥 朴燦宅 金根益 神崎吉郎聯 市來政治 洪淳熙 木村大嗣 洪奉珠 岩崎茂佑 伊藤伊外作 黃得龍 高龍準 古賀龜太郎 石井榮太郎 金泰壽 鄭洪朝 石口象次郎 木澤友次郎河野正一 崔俊弘 任基鎬 矯本財治 石井米一 江夏友次郎 梅林次郎 村田嘉藤治 文昌憲 文公謙 玄圭도 金行好 高昌珉 濟州本願寺 朴明善 立野角三助 垣內準三 黑田政一 松瀨雄一 竹森末藏 玄景昊 金昌

다. 원래 耽羅國은 성스러운 곳 이어서 오백 개소의 절이 있었던 곳입니 다만 근자로 오는 수백 년 동안 그 절들이 대개 연기와 티끌에 매몰되고 말았기에 二十萬이 넘는 제주도 사람들의 精神的 支柱가 되었던 절과 탑은 각자의 머릿속에만 아득히 남아 있을 뿐이고 대개는 바람에 넘어지고 비에 씻겨 없어졌습니다. 現今은 세계가 모두 불교의 모임을 創設하여서 교리를 연구하고 宣布하는 데 힘쓰고 있거늘 어찌 우리 제주도만이 불교를 일으킬 마음을 내지 않고 잠자코 지내겠습니까? 이러한 뜻에서 제주도 신령스러운 섬 전체를 통일하는 제주불교협회를 조직했으니 … (하략) 『濟州佛教協會 趣旨書』

五 高性諱 朱性信 洪平圭 洪首陽 氏 各 一圓 高碩鍾 母親 參圓 金今順 一圓五十錢³³⁾

濟州幼稚園은 數個月 前부터 當地 青年有志 姜惠表氏가 單獨으로 經營하여 오는데 園兒가 八十餘 名에 達하여 그 成績이 實로 良好하나 恒常 社會的 同情이 無하야 維持가 極히 困難하더니 今般에 一般社會의 同情이 濟州 幼稚園에 몰려 園舍를 當地 兵門洞에 移하는 同時에 그 範圍를 擴張하여 園長에 李允熙 氏 園監에 朴燦宅씨를 推薦하고 지난 十日 下午 二時에 當地 佛教布教堂 內에서 盛大한 開院式을 舉行하였느바 同園의 將來가 매우 洋洋하다 하며 基本金이 積立되기 전 까지는 園長 外 父兄 諸氏가 經費를 自進 負擔키로 되엇다더라(濟州)³⁴⁾

1920년대 제주불교의 중심으로 활동한 제주불교협회는 이회명과 그의 제자인 정지월(鄭指月)을 초청하여 금강대계회와 불교 강연, 설법대회 등을 개최하였다. 1926년 12월 22일 자 『매일신보』는 ‘濟州佛教總會’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교무(敎務)를 확장하기 위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주요사항을 토의한 후 폐회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1925년 12월 30일(음력 11월15일) 봉행한 금강대계회에는 수계자가 100명 이상, 1927년 3월 24일 공립보통학교³⁵⁾에서 개최한 이회명 초청 강연회에는 수백 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제주불교계가 신도는 물론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포교에 나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알 수 있는 근거이다.

濟州佛教協會에서는 本月 十一日은 釋迦牟尼佛의 成道日인 故로 此를 紀念하기 위하여 當法師 李晦明 氏는 盛大히 說法會를 開催하고 並히 大行天 皇奉悼式을 舉行하였더라.³⁶⁾

33) 「濟州佛教擴張라 寄贈者 諸氏」, 『매일신보』 1926년 1월 20일.

34) 「濟州幼稚園 曙光」, 『매일신보』, 1927년 9월 18일.

35) 지금의 제주 북초등학교

36) 「佛教成道紀念」, 『매일신보』 1927년 1월 18일.

【濟州】濟州佛敎協會에서는今回出張中인京城大覺院法師鄭指月氏를招聘하여去二十五日에盛大히說法大會를開催하였는데滿場拍手로喝采하고此를紀念하기爲하여一同이撮影하였더라.³⁷⁾

【濟州】濟州舊左面寧里修養團에서金鎬珉洪完杓韓汝曼及官公吏의發起로當地佛敎協會擔任布敎師李晦明氏를招聘하여去二十四日當地公立普通學校內에서講演會를開催한바聽講者는無慮數百名에達하는盛況이었다더라.³⁸⁾

1926년 5월 28일 자 『매일신보』는 ‘제주(濟州)의 법연(法筵)’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설교회(說敎會)를 진행하였는데 관광자(觀光者)가 인산인해(人山人海)를 성(成)하였다”라고 보도할 정도로 군중이 운집했다. 특히 이날 설교회는 붕어(崩御)한 순종황제의 추도행사를 겸해 열렸다. 기존 법회에서 진행되는 예불 등 절차를 생략하고 극락왕생을 축원하는 묵도(默禱)에 이어 설교회를 개최했다.

이와 같이 제주불교협회는 은연중에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여성운동 등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을 펼쳤지만, 식민지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포교당 건축비 모금 운동에 제주불교협회 임원 등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천황봉도식(天皇奉悼式)을 거행한 사실도 있다.

이 시기에 제주불교협회에서 활동했던 주요 인사들은 제주불교계는 물론 제주지역의 유지였다. 양홍기(梁洪基), 김태민(金泰玟), 김근서(金根著), 고병익(高翊柱), 이윤희(李允熙)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양홍기는 변호사(1924), 제주면협의원(1925), 전남도 평의원(1933), 제주중등학교설립추진위원회 부회장(1936), 전남도회 의원(1937) 등을 지냈다. 김근서는

37) 「濟州佛敎說法大會」, 『매일신보』 1927년 3월 6일.

38) 「濟州佛敎講演」, 『매일신보』 1927년 4월 10일.

제주명신학교 설립운동 참여(1921), 전남도 평의원(評議員)(1924), 제주중등학교설립 추진위원회 고문(1936) 등을 지냈다. 김태민은 제주체육협회 초대 회장(1924), 제주청년회 초대 간사장(1924), 제주도구제회 위원장(1925), 제주청년회 연합회 준비위원(1925), 제주운동장 처리위원회 준비위원(1925), 중등학교설립추진위원회 간사장(1936) 등을 역임했다. 이윤희는 제주운동장 처리위원회 준비위원(1925), 제주유치원장(1927), 제주중등학교설립추진위원회 회장(1936) 등을 지냈다. 향후 제주불교협회에서 활약한 주요 인사들이 지역사회에서 공헌한 내용을 정리하고, 근대 제주불교 핵심에 있었던 봉려관과의 관계를 연구하여 조명할 필요성이 있다.

IV. 1930년대 제주불교계의 교육사업

1930년대 일제는 만주사변을 일으켜 중국 대륙을 침략하는 등 제국주의 확대를 도모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는 병참기지로 전락하고 일제의 식민지 정책도 한층 강화됐다. 이 무렵 봉려관과 관음사를 언급한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제주불교협회는 불교유치원과 중등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등 교육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濟州佛敎協會에서는陰四月八日을紀念코자盛大한觀燈其他莊嚴한儀式下에서奉佛의禮式을舉行한바觀光者가數千人以上에達하였으며臨時總會를開하여役員은當地重望家로左와如히改選하였다.會長田中濟州島司副會長金根著總務梁洪基贊成長鄭斗正評議長李允熙布敎部長安道月吳一華救濟部長蓬廬觀³⁹⁾

各地片片【濟州】濟州佛敎協會에서는安道月蓬廬觀兩氏의發起로宗

39) 「濟州의奉佛式」, 『매일신보』 1930년 5월 11일.

務를 擴張할 計劃으로 佛教幼稚園을 創設코자 目下 重要幹部와 協議中인데 不遠間 實現되리라 한다.⁴⁰⁾

1930년 제주불교협회는 수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등(觀燈)을 비롯 해 장엄한 의식으로 봉축행사를 봉행했다. 임시총회를 개최해 임원을 개선하였는데, 회장에는 일본인 다나카[田中] 제주도사(濟州島司)를 선출하고, 임원에는 재가불자들이 선임됐다. 특이한 점은 포교부장에 안도월과 오일화(吳一華), 구제부장에 봉려관을 선출했다는 사실이다. 봉려관의 구제부장 임명은 제주인을 구호하기 위한 자비행 실천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일본인 관리가 회장으로 임명된 것을 두고 친일(親日) 성격을 지녔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제주불교협회가 다양한 사회사업과 포교사업을 진행하려면 당국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보다 앞서 제주불교협회는 1930년 1월 봉려관과 안도월의 제안으로 불교유치원 창설을 추진했다. 유아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미비한 상황에서 설립을 발기한 것은 교육에 대한 인식이 높았으며 제주불교인들의 원력이 모였기 때문이다. 『매일신보』는 “중요 간부와 협의 중인데 불원간 실현되리라 한다”고 전망해 봉려관과 안도월의 유치원 설립 제안에 제주불교협회 간부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추정한다. 식민지하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했다는 점은, 당시 제주불교계가 불교를 전파하는 일에만 국한하지 않고,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 세대들의 교육에 관심을 가졌다는 증거이다.

1930년대 중반 제주불교계는 불교유치원에 이어 중등학교 설립 운동에도 나섰다. 1930년 봉려관과 안도월의 제안으로 불교유치원 설립을 추진한 제주불교협회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던 것이다.

40) 「各地片片」, 『매일신보』 1930년 1월 28일.

【제주】濟州島の 現狀은 地理 關係上 又は 經濟 關係上 其他事情으로 因하여 海外 遊學의 恩澤까지도 忝히 못하고 初等學校 卒業의 七八割인 多數 青少年은 教育機關의 缺○⁴¹⁾으로 本道 選出 道會議員 梁洪基 氏는 年未로 此에 感한바 切實하나 財政問題로 拱手傍觀하고 잇스면서도 財源 捻出에 努力하고 잇는 中 自己가 幹部로 活動하는 濟州佛教協會를 蹶起케 하여 同會의 事業으로 經營할 것을 自覺하고 會長 金根者氏 幹部 安道月 及 安蓬盧觀 氏가 協力하여 同會에 基本金 萬圓을 基礎로 同寺의 大本山되는 海南 大興寺로부터 金 萬圓의 補助를 仰하여 合計 貳萬餘圓을 基本金으로 하고 城內의 女子普通學校 校舍를 買入하여 濟州實科中學院 設置方을 活動하는 一端 爲先 其 前提로 濟州中學講習院의 認可를 受하여 去十二日에 同校 內에서 當地 官氏 有志 多數 參席下에 開校式을 盛大히 舉하였는데 濟州島司의 告辭 來賓中 芳荷農業學校長 山田警部 澤田副邑長 公職者 代表 崔元淳氏 民間 代表 江夏友次郎氏, 初等校長 代表 山邊小學校長 等の 祝辭가 잇섯다. 式이 끝나자 別室에 設備한 祝宴에 移하여 和氣霧裡에 歡을 盡하고 散會하였다. 同校는 濟州中學校의 基礎로 二十萬 島民의 企待를 맞고 잇다.⁴²⁾

【제주】 제주불교협회(濟州佛教協會)에서는 다년간 현안 중이던 중학설립(中學設立)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도 당국에 신청 중이든바 지난 六월 八일에 인가가 나와 十二일에 개교식을 거행하였다한다.⁴³⁾

【濟州】 제주도는 중등교육기관의 결핍으로 년년 천여 명의 학생이 배울라야 배울곳이 없어서 가두로 방황케 되는 중대한 사회문제로 일반도민은 중등교육 기관의 설치를 갈망하여 마지 안튼 중 제주도 유지들의 활동으로 지난 오월십이일 오후 삼시에 제주중학강습원(濟州中學講習院) 강당에서 제주중등학교 설립 기성회 창립대회를 양홍기(梁洪基)씨의 사회로 개최되었다.⁴⁴⁾

41) 판독 불분명

42) 「濟州中學講習院 去十二日에 開校式을 舉行 梁洪基 氏 努力 奏效」, 『매일신보』 1935년 6월 19일.

43) 「중학강습원」, 『매일신보』 1935년 6월 28일.

44) 「全濟州 島民 總動員 中等學校 設立 期成 委員 七十餘名을 選定」, 『조선

【濟州】 제주도는 중등교육기관의 결핍으로 연년 千여명의 학생이 배우러 하야도 배울길이 없어 가두에 방황케 되는 현상에 있어 중대한 사회문제라 하야 일반도민들은 중등교육기관의 완성을 갈망하야 마지 않는 중 <중략> 립주의 여지가 없을 만큼 성황을 일우어 밤 十시까지 피로움도 있고 긴장 한 가운데 중등학교 설립에 관한 토의를 마치고 임원 七十八명을 선거하였 다는데⁴⁵⁾

제주불교협회는 제주지역 청소년들이 지리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육 지에 있는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다. 초등학교 졸업 생의 70~80%가 진학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주불교협회 양흥기가 설립을 추진했지만 재정 문제로 난관에 봉착했다. 이때 제주불교협회 김근시 회장과 봉려관, 안도월, 해남 대흥사가 1만 원을 출연하여 학교 설립에 필요한 기본금을 마련했다. 이 기금으로 성내(城內)에 있는 여자 보통학교 건물을 매입하고 제주실과중학원(濟州實科中學院) 설립을 추 진하여 제주중학강습원(濟州中學講習院) 인가를 받았다. 지역 유지와 주 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1935년 6월 12일 개교식을 성대하게 개최했다.

『동아일보』의 ‘다년간 현안 중이든 중학 설립’이라는 기사에 의하면, 제주불교협회가 수년 전부터 중등학교 설립을 추진했음을 알 수 있다. 개교식을 보도한 『매일신보』는 축하연이 화기에애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으며, 20만 제주 도민(島民)의 기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사실은 봉려관을 비롯한 제주지역 승려와 신도들이 유치원 에 이어 중등학교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 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음을 보여준다. 불교를 전하는 데 그치지 않 고 제주지역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나섰던 것이다.

한편 1930년대 언론에서 이은상은 봉려관과 관음사를 비교적 상세하

일보』 1936년 5월 18일.

45) 「濟州中等學校 設立 期成會 組織 島內 多數 人士의 參加로」, 『조선중앙일 보』 1936년 5월 20일.

게 조명하여 보도한다. 1937년 9월 8일 자 『조선일보』에 실린 「漢拏山 巡禮記 - 登山篇(3) 蓬廬觀의 觀音寺 - 道傍俯伏의 俗과 山川壇」가 그 것이다. 봉려관이 입적하기 1년 전 보도라는 점에서 최소한 1937년 9월 까지 봉려관이 제주불교의 핵심에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굴치』를 거쳐 舊韓國 時節에 軍馬를 치던 곳인 石垣을 넘어 觀音寺라는 적은 庵子를 만난다. 이 觀音寺는 蓬廬觀이라는 比丘尼의 創建인데 그는 일즉 佛敎의 篤信者이었다. 俗姓은 安氏로 本始 土人이더니 丁未⁴⁶⁾ 九月에 (或云 十二月 二十八日) 出家의 뜻을 품고 海南 大興寺 晴峰和尚에게 나가 薙髮受戒하고 明年⁴⁷⁾ 正月에(或云 五月五日)에 돌아와 佛法을 宣布코 저 하였으나 島民 一般의 逼迫이 極甚하야 드디어 그야말로 『天地無家客 東西未定巢』의 몸이 되었다. … (중략) … 이가티 歷史는 비록 짧고, 堂宇 는 비록 볼 것 없스되 여기 얼킨 傳說味 나는 事實이 재미 잇기로 여기서 잠깐 쉬기로 한다.(사진은 觀音寺)⁴⁸⁾

이 글에서 이은상은 ‘적은 庵子’라고 표현한 관음사가 ‘봉려관이라는 비구니의 창건’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봉려관이 일찍부터 불교의 독신 자(篤信者)라고 부연하면서 그의 생애를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했다. 해 남 대흥사 청봉(晴峰) 화상에게 삭발하고, 1908년 1월(혹은 5월 5일) 제 주로 돌아와 불법을 펴고자 했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하여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은상은 이를 두고 「天地無家客(천지무각객) 東西未定巢(동서미정소)」의 몸이 되었다고 기술했다. 봉려관은 제주 전 법 초기에 ‘천지에 집 없는 나그네요, 동서에 거처를 정할 곳’이 없는 신세였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은상은 “역사는 비록 짧고, 당우 (堂宇)는 비록 볼 것 없지만 여기에 얽힌 전설이 재미있다”면서 “여기서

46) 1907년

47) 1908년

48) 李殷相, 「漢拏山巡禮記 - 登山篇(3) 蓬廬觀의 觀音寺 - 道傍俯伏의 俗과 山川壇」, 『조선일보』 1937년 9월 8일.

잠깐 쉬기로 한다”고 서술했다.

한편 1938년 7월 10일, 13일, 15일 자 『동아일보』에는 신문사 지국이 주최한 ‘제주탐승단원 모집’ 공고가 6회 실렸는데 ‘봉려관 관음사’를 언급하고 있다.

濟州島 探勝團員 募集
 日時 七月 十九日 夜 九時 出發 [同 二十七日 朝 六時 歸着 往復 八日間]
 集合場所 舊 馬山元町 埠頭
 … (중략) …
 探勝地 濟州島內 一周 視察, 漢拏山의 等攀, 山頂의 白鹿潭, 開闢의 三姓穴
 跡, 山房窟寺의 遺跡, 天帝淵의 飛瀑, 海邊의 正房瀑, 雙白虹의 天地瀑, 城
 山의 九十九峰, 奇景五百羅漢, 金寧山의 蛇穴, 蓬盧觀의 觀音寺⁴⁹⁾

신문의 공고에는 ‘봉로관(蓬盧觀)’이라고 잘못 표기하였지만, 봉려관을 지칭한 것이다. 『동아일보』 마산지국이 주최하고 여수지국과 제주지국이 후원한 탐승단원 모집 공고에 ‘봉려관 관음사’라고 게재할 정도로 봉려관은 관음사를 상징하고 있었다.

1930년대 제주불교계와 봉려관은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실행 단체를 설립하여 포교 활동에 적극 나섰음은 당시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불교유치원과 중등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등 지역 사회와 밀접하게 결합한 모습을 보였다. 식민지 시대 제주에서 불교를 중흥하고 대사회적 역할을 이행하고자 노력했던 흔적에서 그 당시 봉려관과 제주불교인의 사명감과 추진력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V. 결론

이상 살펴본 대로 20세기 전반 제주불교계는 불교 포교와 더불어 지역 근대화를 위해 이바지했다. 또한 그 중심에 봉려관이 있었던 사실을 당시 언론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봉려관은 관음사와 범정사를 비롯한 다수의 사찰을 창건하고, 제주불교인들이 참여한 제주불교협회를 통해 부처님오신날과 성도제일 등 각종 기념일에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이와 더불어 제주불교부인회와 제주불교소녀단을 구성하여 불교여성운동과 사회여성운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 유치원과 중등학교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교육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점도 의미가 크다.

근대제주불교와 제주 사회에 크게 기여한 봉려관의 긍정적인 평가는 언론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일제강점기 제주불교와 관음사 등을 소개한 기사에서 권덕규, 이병기, 이은상 등 시대를 대표하는 문인(文人)들은 봉려관의 생애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민족의식을 지녔던 그들이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글을 썼다는 사실은 봉려관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1970년 2월 26일 자 『조선일보』에 실린 한편의 기사에서 30여 년의 세월을 넘어 언론이 기억하는 봉려관을 만날 수 있다.

윙희 2년 1월 蓬盧觀⁵⁰⁾이란 法名의 비구니가 제주도에 들어가 절을 짓고 부처를 모셨다. 그리고 그해 초파일날 設齋縣燈하였더니 島民 수백 명이 작당하여 몽둥이, 농구를 들고 물려들었다. 절에 대해 본 일도 들은 일도 없는 島民들에게 仏事는 해괴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었다. 비구니는 한 라산으로 추방당하고 절은 부셔졌다. 草食放浪한 이 비구니는 머리가 길어 獸女같은 형우로 野生馬며 사슴과 친해져 암굴에서 같이 자고 같이 살았다. 그는 인간이 그 類에 속한 짐승의 본연을 見性하며 살았던 것이다. 소치는

49) 「濟州島 探勝團員 募集」, 『동아일보』 1938년 7월 10일, 13일, 15일.

50) 蓬盧觀의 오자.

牧者들이 이 짐승을 거느린 평화로운 獸女를 자주 보고 신기하게 여겨 그 때야 島民들이 한라산 아래턱에 절(觀音寺)를 짓고 이 비구니를 모셔 내렸던 것이다. 이것은 이 섬사람들의 排他性을 대변해주는 많은 史實 가운데 一例에 지나지 않는다.⁵¹⁾

일제강점기에 보도된 기사에서 나타나는 봉려관의 생애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된 점은 조선 후기 훼손(毀撤)된 제주불교의 씨앗을 심고 부흥하기 위해 헌신한 봉려관의 삶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 글을 쓴 이규태는 ‘獸女’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봉려관이 극심한 고초를 겪은 일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몇 가지 과제를 생각해 보았다. 첫째, 일제강점기 신문 자료의 심층조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봉려관’, ‘봉노관’, ‘제주불교’, ‘제주불교협회’ 등의 검색어를 사용하는 과정을 통해 다수의 자료를 찾았지만, 검색어를 비껴간 자료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일제강점기 일반 언론이나 불교잡지 이외의 다른 매체에 실린 자료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봉려관이나 제주불교계의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상에 비추어 볼 때 다른 매체에 관련 기사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국내 자료와 더불어 일본에 있는 자료를 세밀하게 탐색해야 한다. 봉려관의 활약상을 고려하면 일제당국이 기록한 자료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넷째, 봉려관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제주불교협회 인사나 대흥사 승려 등의 자료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봉려관을 ‘무녀’ 등으로 왜곡하여 표기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정부, 지자체, 불교계 등에서 여전히 그런 자료들이 확인된다.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숱한 고초를 겪으면서 출가수행자로 제주불교의 초석을 놓고 제주 사회의 근대

화에 기여한 봉려관의 생애와 가르침이 바르게 기록되고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51) 李圭泰, 「인물로 본 한국학 人脈<52> 歷史의 뒤안길을 엮는 特別連載」, 『조선일보』, 1970년 2월 26일.

참고문헌

김광식, 「제주 근대불교의 민족운동 재인식」, 『불교학보』 89집,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2019.

이경순, 「이회명과 근대 제주불교」, 『대각사상』 35집, 대각사상연구원, 2021.

혜 달, 「근대 한국여성의 선구자 해월당 봉려관 스님」, 해월당 봉려관 스님발자취 세미나, 탐라정보문화원, 2018.

황상준, 「관음신앙을 중심으로 본 근현대 한국 고승의 가피사례」, 『한국불교학』 91권, 한국불교학회, 2019.

윤필 · 이향순, 『고마워요 봉려관』, 도서출판 북뱅크, 2020.

정진희(혜달), 『봉려관 : 근대 제주불교를 일으켜 세우다』, 조계종출판사, 2021.

『동아일보』

『매일신보』

『불교』

『불교신문』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제주불교신문』

불교텔레비전

봉려관 홈페이지(봉려관.org)

Abstract

A Study on Modern Jeju Buddhism and Bongnyeogwan
 - Focused on Media Report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

Lee, Sung-soo
 (Journalist, The Bulgyoshinmun)

Jeju Buddhism suffered extreme hardship due to the oppression of governor Lee Hyeong-sang(李衡祥) in the late Joseon Dynasty. In this situation, the Bhikkuni Bongnyeogwan(蓬廬觀) restored Beobjeongsa Temple and Gwaneumsa Temple while building them. Bongnyeogwan contributed to the revitalization and socialization of Jeju Buddhism by conducting active tactic activities and establishing close relationships with residents. In the early 20th century, Jeju people overcame the low awareness of Buddhism and expanded the teaching of modern Jeju Buddhism. This was not an easy task considering the reality of the early 20th century, when male-centered thinking prevailed.

Along with propagating Buddhism, he was also active in social relief activities. He participated as an executive member of the Jeju Hunger Relief Association and conducted social projects to save neighbors in need, such as shrinking the Dongsucheon Well. The Buddhist teachings did not stay within the denomination, but they practiced mercy to benefit the world.

The Jeju Buddhist Association, in which modern Jeju Buddhists participated, implicitly promoted national consciousness and supported social activities such as women's movement. Bongnyeogwan and Jeju local monks and believers worked hard to instill dreams and hopes in local

youth by establishing secondary schools followed by kindergartens. The infallible uprising of Beobjeongsa Temple, founded by Bongryeogwan, has great historical significance as an independence movement that rose before the March 1st Movement in 1919.

In this way, based on the mission and driving power of Bongnyeogwan and Jeju Buddhists during the colonial era, they tried to revive Jeju Buddhism and fulfill its role in the great society. This fact can be confirmed through media such as Dong-A Ilbo, Chosun Ilbo, and Maeil Shinbo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life and teachings of Bongryeogwan, who laid the foundation for Jeju Buddhism as a chaplain and contributed to the modernization of Jeju society, should be properly recorded and evaluated.

Key words

Bongnyeogwan, Bhikkuni, Jeju Buddhism, Gwaneumsa Temple, Beobjeongsa Temple, Jeju Hunger Relief Association, Jeju Buddhist Association, Jeju Middle School Academy, Jeju Kindergarten, Independence Movement

논문투고일 : '22. 10. 31. 심사완료일 : '22. 11. 23. 게재확정일 : '22. 11. 23.